

## “이재용 이사장 소득세 탈세 치과시절 진료비도 부당 청구”

### 한나라 공세

한나라당은 25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용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 이사장 임명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청와대의 고장난 인사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의장은 24일 “이 신임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그리고 2006년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였지만, 1988년부터 자신이 보유한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이 기간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에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문화동에 과표 기준 2억 2천 700만 원 상당의 1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던 이 이사장이 납부예외 상태로 있었던 점에 대해 “이는 국민연금을 탈루했고 같은 기간 소득자료가 없었던 점에 비춰 건강보험료도 탈루했다.”며 “지역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한 점수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이 이사장은 소득 부분이 0점 처리되면서 건보료도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이사장이 D치과 재직 시절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